



8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무주로

군수협 정기총회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개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가 8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무주총회는 전국에 태권도원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황정수 무주군수가 유치의사를 밝히며 성사된 것으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상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태안군수)을 비롯한 황정수 무주군수 등 전국 44개 지자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은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무주군(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 확대 / 국립공원지역 주민소득 규제완화 및 해소) 등 8개 군에서 올린 18개 정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동필 장관이 강의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방향과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일선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현장에서

의 어려움은 협의회를 통해 정부로 전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농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는 활약을 기대하면서 농어촌 발전과 농업 성장에 위해 마음과 머리를 모아 나아가 보자"고 말했다.

한편,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들이 태권도시범과 태권도원 전장대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황 군수는 "내년 6월이면 160개국에서 2천 명이 넘는 태권도인들이 참가하는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바로 이곳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며 "국가 브랜드와 태권도원의 위상을 높이고,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될 2017 무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태권도원이 전 세계 태권도 성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8천만 태권도인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데 의미가 있고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징지구 조성 및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 등의 과

련 인프라들을 우선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적 염원을 담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나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전국 농 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69개 지자체)는 전국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농업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2012년 출범한 단체로,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재정 확보와 농업문제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농어촌현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며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이날 제7차 정기총회에서는 기존에 가입된 69개 지자체 외에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남도 보성군이 신규로 가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기 회장은 "협의회에서는 농어촌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통해 농어촌의 현안을 해결해서 지속가능하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완주군의회, 재개 촉구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 10명의 의원들은 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의 조직 및 인력개편으로 인해 화폐수급업무가 전북본부에서 광주전남본부로 이전돼 전북경제가 광역지역으로 흡수되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가속돼 왔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5대 광역본부에 이어 전북을 제외하고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개시하도록 한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였으며, 10만 완주군민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왔다.

또한 국내 3대 은행이자 서부권역 유일의 지방금융지주사인 JB금융지주가 소재한 도시로 혁신도시내 수많은 기관과 지역의 기업 등이 집결돼 막대한 양의 화폐수급에 따른 공급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경제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혁신도시 이전과 금융융복합의 이전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복원은 막대한 비용이 아닌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호남권의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본사, 행정기관 등이 광주·전남지역에 90% 이상 편중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최소한의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훼손한 행위이므로, 지방자치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는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전북의 미래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별블로그

무주군, 치매 인지재활교실 운영

무주군은 오는 7월 26일까지 화·목요일(13:30~16:00) 보건의료원 6층에서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6 치매조기검진사업 결과 인지 저하자와 치매고위험군, 경증 치매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치매예방체조와 인지훈련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치매선별검사와 일상생활활동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노인우울척도 등을 평가해 기억력, 시지각력, 집중력, 계산력, 문제해결력, 회상능력 등 인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뇌 운동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진행에 내실을 기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7월 21일까지는 관내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와 무주 988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우울·치매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금남호남정맥 등

3대 정맥길 안내표지판 설치

진안군은 올해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등 진안군을 통과하는 3대 정맥길 78.3km에 안내도 3개, 표지판 18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정맥 종주 산악인들의 불편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진안고원은 정수군 영취산에서 시작되는 금남호남정맥이 팔공산부터 조약봉까지 41.5km를, 조약봉에서 갈라진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각각 26.3km, 10.5km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많은 정맥 종주 산악인들이 찾는 곳 중 하나이다.

그동안 이곳에는 9개의 안내도와 표지판이 설치되었지만, 많이 부족한 형태로 진안군은 올해 등산로를 직접 답사한 결과 총 21개의 안내도와 표지판이 추가로 필요해 대대적인 정비와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장이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무주군의회 (의장 이한승)가 8일~17일까지 10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방문과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 건 처리 등 제 7대 무주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만큼 내실 있게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한승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계획된 우리군 주요시책 및 군정 사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제7대 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부응에 끝까지 최선을 다

력을 다하겠다." 전했다.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8일 개회를 열어 9일까지 이틀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공정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점검하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 별로 16개 실과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15일~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 한 후 조례안 등 상정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결 한 뒤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의장 오재만)는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등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된다.

오재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심사를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향후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 중

요한 의정활동으로, 결산 심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의에 철저히 기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 조사 시에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6월 16일부터 실시되는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군정주요시책과 각종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의장 이한기)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식)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향후 일정으로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남기)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군 조례 일괄폐지 조례안 등 1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갑수)에서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드림협동조합, 농촌마을 포장디자인 공모 '우수상'

스토리·풍경 이미지화

장수드림협동조합(대표 류기행)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최한 제2회 농촌마을 포장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수드림(Jangsu dream)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높은 일조각 속에 서 자란 농산물을 만든 가공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장수(長壽)의 꿈을 이루길 소망하는 마음과, 소비자에게는 장수를 드리고 농부는 농외소득을 창출해 농가의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장수드림의 포장 디자인은 제품 차별화와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장수의 스토리와 풍경을 이미지화했으며 기존 50개 수량을 30개로 줄여 무게에 대한 부담을 덜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수드림협동조합은 장수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 가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공동협

업체로 사과와 오미자를 주로 가공·유통하고 있으며 칼리너리투어(음식관광)를 통해 소비자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사과수확체험과 오미자청 담기체험을 진행하는 등 2013년 8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 2015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정을 받았다.

류기행 대표는 "이번 농촌마을 포장디자인 공모전 수상을 통해 장수드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제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제품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 고산미소시장 캠핑 페스티벌 개최

내일부터 3일 간 진행

완주군 고산미소시장 및 생태공원 일원에서 캠핑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페스티벌이 열린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캠핑과 카라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고산 지역 일원에서 캠핑가족들과 함께 하는 캠핑 캐러밴 축제를 진행한다.

약 40여 팀이 참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가족 숲 체험을 비롯해 놀이마당, 장기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와 아트마켓, 문화공연 등의 풍성한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만경강 상류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고산미소시장은 인근에 고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한 무궁한 테

마식물원, 고산 향교 등 힐링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명소가 있다.

특히 이번 캠핑캐러밴 축제는 캠핑족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상인들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공정캠핑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공정캠핑은 캠핑가게에 앞서 음식물과 필요한 소모품을 대형마트나 생활근거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입해 지역상인들과 상생을 이뤄가는 캠핑이다.

기타 사항은 고산미소시장육성사업단 063)261-2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캠핑캐러밴 페스티벌로 완주군 고산이 캠핑특화지구로 주목받는 동시에 고산미소시장이 상인들의 소득 증대 기틀을 마련하는 로컬 명품 시장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응급의료기관 개선 국비 3억5000만원 추가 확보

진안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국비 2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6년 국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의료 인력확보(의사 4명, 간호사 5명)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4월 2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연중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안정화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장수군은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8일 최용득 장수군수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군민들이 올 여름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장수군은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건강검진 등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면사무소, 경로당, 금융기관 등 33개소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군민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